

人類學 教育의 특성과 발전 방향

韓 相 福

(서울大 人類學科)

1. 머리말

인류학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확대 보급은 國力과 比例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국외에 많이 진출한다든가 어떤 목적으로든지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 자기네와는 상이한 관습과 문화를 가진 다른 民族과 그들의 生活樣式, 행동 방식, 사고 방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류학이 바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인류학에 관한 서적의 수요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학의 공개 강좌와 대학에서의 인류학 강좌 및 그것을 수강하는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서울大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에 배 학기마다 인류학 개론의 강좌 수만도 7개 내지 9개씩 개설되고, 한 강좌에 100명 내지 200명씩 수강하기 때문에 1년에 2학기를 합치면 2천 명 내지 3천 명의 학생들이 인류학 개론을 수강하는 셈이 된다. 그것은 서울大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비율이다. 따라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도 강의 내용과 방법 및 강의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들을 포함하는 인류학자들은 대부분 研究者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지 학생들에게 인류학을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는 教師教育을 비교적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원의 인류

학회 또는 인류학 연구회의 모임과 학술지에서 인류학 연구의 문제들을 주로 논의하였지 인류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人類學 教育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인류학 교육은 그 연구에 못지 않게 人類學 發展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인류학적 아이디어를 널리 보급하는 작업은 책이나 학술지, 공개 강연, 기타 신문, 라디오, TV 등을 포함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인류학의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는 역시 대학의 교실이라고 생각된다.

2. 人類學 教育에 대한 關心

한국의 인류학계에서 인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82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용인 민속촌에서 개최된 韓國文化人類學會 제14차 전국 대회의 제1회 워크샵에서였다. 이 워크샵의 주제는 제1부 인류학 개론 교육의 문제(사회: 한상복), 제2부 학생들이 본 인류학 교육(사회: 이광규), 제3부 인류학 대학원교육과 연구(사회: 김택규), 제4부 한국에 있어서의 인류학(사회: 강신표)이었다. 여기서는 인류학 교재 개발과 교과과정, 교육 방법, 연구 방법, 한국 인류학의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이처럼 인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인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어 첫 워크숍의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창설된 지 25년만의 일이고, 한국의 대학에 4개 인류학과(서울大·嶺南大·慶北大·漢陽大)가 설립된 뒤의 일이었다. 대학의 學部와 大學院 학생들에게 인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학생들은 현재의 인류학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인류학 교육이 학부와 어떻게 다르며 대학원의, 바람직한 인류학 교육은 무엇인가? 인류학의 연구 방법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도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인류학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인류학 교육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당면하는 現實的인 關心에서 나온 것이다.

인류학 교육이 미국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1960년대 초의 일이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高等教育이 강조되고 양적으로 팽창한 데다가, 특히 인류학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전문 인류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인류학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美國民族學會에서는 1960년 춘계 대회에서 文化人類學의 學部教育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주제 논문 발표와 토론 및 논평을 통하여 인류학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바 있다. 그때 지적된 문제점들은 많은 대학에서 인류학자가 아닌 非專門家에 의해서 인류학 강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과 인류학 전문 분야의 세분화로 인하여 인류학자 자신도 더 이상 일반적인 종합 인류학자로 남아 있을 수 없고 특수한 전공 분야의 專門人類學者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심포지움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大學 인류학과와 人類學 教育資源(educational resources in anthropology : ERA)이라는 연구 과제의 일부로 개최된 것이다. 그 과제는 미국 인류학연합회 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과학재단(NSF)의 재정적 지원으로 1960년 4월부터 1961년 3월까지 인류학 교육에 관한 10회

의 국내·외 심포지움을 거쳐 「인류학 교육」과 「인류학 교육 자원」이라는 2권의 자료집으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자료집의 집필진에는 미국과 영국 및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지도급 인류학자 50여 명이 참가하였다.

3. 人類學과 人類學 教育의 特性

인류학 교육의 특성은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人間과 文化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은 첫째로 그 연구 대상에 있어 인간의 체질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모두 포괄한다. 둘째로 인류학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포함하는 인간과 문화의 진화 발달 과정상의 모든 시대를 다루고, 공간적으로 전세계의 모든 인간과 문화를 포괄한다. 셋째로 인류학의 관점은 인간의 생활 경험에 대한 총체적 관점과 문화 상대성의 관점 및 비교 연구의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인류학의 연구 방법은 주로 어느 특정한 인간 사회에 인류학도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 및 사고 방식을 관찰하고 면접하는 現地調査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가설과 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의 인류학과에서는 체질인류학, 고고인류학,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의 전공 분야가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體質人類學의 연구가 주로 의과대학 체질인류학 또는 해부학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考古學의 연구는 인류학보다 역사학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言語學의 연구도 인류학보다는 국어학이나 외국어 연구와 더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학과의 구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과대학에 체질인류학(해부학) 교실이 있고, 인문대학에 고고미술사학과와 언어학과가 따로 독립되어 있으며, 인류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있다. 그래서 서울대 인류학과에서는 文化人類學 또는 社會人類學의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인류학의 중심 과제는 문화의 개념과 변동 등을 포함하는 문화 이론, 혼인, 가족, 친족, 사

회 조직, 경제, 정치, 법, 종교, 인성, 언어, 예술, 환경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문화인류학도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학적 연구의 경험과 방법 및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應用人類學에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은 다시 더 세분된 특수 전문 분야로 나누어진다. 문화이론, 사회구조론, 경제인류학, 정치인류학, 법인류학, 종교인류학, 심리인류학, 언어인류학, 예술인류학, 생태인류학, 응용인류학, 의료인류학, 산업인류학, 교육인류학, 인구인류학 등이 그러한 특수 전문 분야들이다.

그 밖에도 인류학 교육에서는 인류학의 理論과 方法論 및 연구 대상에 따라 인류학사, 인류학 방법론, 인류학 현지 조사, 도시인류학, 상징인류학, 인지인류학, 영상인류학(또는 민족영화학), 물질문화론, 농민사회론, 소수민족론 등이 따로 강의되고, 한국·중국·일본·동남아·아프리카·남미·오세아니아·남태평양·중동·유럽·북미·아메리카 인디언 등의 여러 민족과 문화에 대한 地域研究가 세분된다. 인류학 개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총론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각론에서는 특수 전문 분야별로 강좌가 개설된다. 그리고 특수 전문 분야의 성격상 인류학 교육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인접 과학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동제휴한다. 인류학이 사회학 및 심리학과 더불어 社會科學의 基礎學問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특성에 있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에 있는 어떤 학문이든지 그 강의가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실증나고 지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무관심하거나 냉담해서도 안 될 것이며, 배우는 데에 염증을 내거나 거부감을 일으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現實關係性과도 적결된다. 그런데 인류학 강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인류학 특유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通時的으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한 인간과 문화의 진화 발달 및 共時的으로 현대의 원시 미개 사회로부터 최첨단의 현대 문명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사례 연구 자료들이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흥미

를 북돋아주고 인류학적 아이디어와 이론들이 학생들의 관심사에 직접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학 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겠다.

4. 人類學科의 教科目과 教授陣

현재 대학에서 인류학 과목, 특히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는 타과의 학생들이며, 그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인류학 강의를 기껏해서 한두 과목만 수강할 뿐이다. 서울대의 경우 1년(2학기)에 15개 내지 20개의 인류학 개론 과목을 설치하여 2천 명 내지 3천 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인류학과 학생들은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결국 인류학 개론의 수강생 중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9% 가량이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인류학과에서 개설하는 학부의 교과목 수도 인류학 개론을 제외하면 매년 20개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1986학년도에 개설한 학부의 교과목 내용을 보면 교양과목 인류학 개론 14개와 다음과 같은 전공 과목 18개뿐이었다. 그리고 대학원의 전공 과목으로는 13개가 개설되었다.

· 학부 전공 과목

인류의 진화, 인류학사, 상징과 의례, 사회인류학, 가족과 친족, 남성과 여성, 인류학 방법론, 인간과 환경, 농민사회론, 동북아 민족과 문화, 인류학 현지 조사, 문화와 경제 행위, 문화와 언어, 도시인류학, 응용인류학, 문화변동론, 법인류학, 인류학과 현대 사회

· 대학원 전공 과목

인류학 기초 연습, 인류학 방법론 연구, 사회구조론, 법인류학 연구, 중국민족학, 일본민족학, 인류학 개별 강독(I·II), 인류학이론사, 경제인류학 연습, 상징인류학, 농민사회론 연습, 인류학 연습

이것을 미국 하버드대 인류학과에서 1986학년도에 개설한 교과목 내용과 비교해 보면 교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개설 과목의 수 및 전임 교수진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바드大의 인류학과에서는 교과목의 내용을 고고학, 생물인류학(체질인류학), 사회인류학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누고 개별 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102개의 교과목들을 1년 동안에 개설하였다. 그 과목들을 담당하는 인류학과와 전임 교수는 34명이었다.

· 하바드大의 인류학 전공 과목

인류학 강독 및 연구 지도, 성과 인증 및 계급, 과거에 대한 접근, 개별지도(2·3·4학년), 인간의 모형, 과거 사회의 재발견, 두뇌와 언어, 영장류 동물의 사회 행동, 영장류 동물의 행동과 진화, 음식물과 소화 및 식물 화학, 사회인류학 개론, 종교인류학, 유인원 해부학, 유인원 고생물학, 선사영양학, 영장류 진화생태학, 내분비학과 행동, 인간 적응성의 생리학, 인구인류학, 선사 시대 인간의 음식물, 인류학도를 위한 比較骨學, 역사고고학, 신세계 문명, 경제인류학과 사회 이론, 남미고고학, 라틴아메리카의 민족 사학 및 고문서, 공상고고학, 고대 근동고고학,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및 인더스 계곡의 고대 문명, 중국고고학(I·II), 남녀 상호 관계의 비교문화적 관점, 도자기의 고고학적 분석과 해석, 변동과 발전의 사회인류학, 정치인류학, 일본의 사회와 문화, 심리인류학, 가족과 친족 및 性役割, 사회인류학과 사회 이론, 멸종이나 적응이나(발전 도상에 있는 부족들의 문제), 네트워크와 단체, 문화심리학, 주술·종교·과학과 합리성의 문제, 민족지의 경험과 윤리, 사회인류학의 발달과 이론(I·II), 인류학과 인간생물학 및 보건, 고고학 방법과 이론(I·II), 북미고고학, 고대 근동의 건축, 중미고고학, 수렵채집사회, 고대 근동의 고고학, 인류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구조주의, 박물관 연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영장류 모형, 행동의 생태학적 모형, 인류의 진화(유전자·두뇌·행동), 안데스 문명과 생태, 인간 재생산의 생태학, 현지 조사와 민족지 원문, 초기 문명의 비교 연구, 고대중국문명, 질적 방법, 의료인류학 및 정신과 인류학의 방법, 사회인류학의 형식적 방법, 의료인류학 및 정

신과 인류학의 이론, 행동생물학의 제 주제(I·II), 문화와 정신병, 아시아 의료 체계, 자연 자원과 제품의 생산과 분배, 理想化의 문화적 비교, 動物相의 유물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인류학과 역사학, 인류의 기원과 진화, 내부 아시아 연구의 제 문제, 일본에서의 自我와 사회, 사회 변동과 발전의 분석상의 제 문제, 사회 계층의 비교 연구, 비교아동발달론, 심리인류학의 주제들, 법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정치와 법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제 문제, 통신 전달로서의 儀禮, 인류학 강독, 종합시험을 위한 개별 강독, 고고학 방법과 이론, 고급체질인류학, 북미고고학과 민족지, 구세계 고고학, 아시아 고고학과 민족지, 중미고고학과 민족지, 고대 중국문서, 남미고고학과 민족지, 近中東의 고고학과 민족지, 인류학 현지 조사 지도, 강독과 연구, 박사 논문 지도

이상의 과목들은 순전히 인류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들이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半學期 과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과목을 여러 교수와 강사가 공동으로 가르치는 과목도 있다. 그 밖에 외국 문화의 과목으로서 인류학과 학생들에게 수강시키는 것으로는 현대 중동의 사상과 변화, 아프리카 문화와 지역 사회, 중미의 문명, 내부 아시아의 문명이 있고, 역사연구 과목으로 잉카제국의 정복과 변형, 문과 과목으로 청동기 시대 중국의 정치와 신화 및 예술, 과학 과목으로 인류의 기원과 진화, 인간 행동생물학, 사회 분석 과목으로 문화와 병과 치료, 교양과목으로 북미 인디언의 고고학과 역사, 켈트어켈트문학 과목으로 켈트족 여성의 지위와 권력, 게일족의 사회 구조, 언어학 과목으로 기술언어학 기법, 언어학 현지 조사 방법, 북미의 토착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1986학년도에 서울大와 하바드大의 인류학과 교과목 개설 및 전임 교수를 비교해 볼 때 서울大 인류학과에서 교과목의 수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고, 전임 교수진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하바드大의 인류학과에서는 체질인류학과 고고학, 언어인류학, 문화(사회) 인류학의 교과목들과 그 담당 교수들을 모두 포

합시킨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의과대학의 체질인류학과 해부학, 인문대학의 고고학과 및 언어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인류학과에서 각기 전공 과목들을 나누어 개설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도 역시 서울대의 경우 교과목의 다양성과 교수진의 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學生・教授・教授方法의 문제 및 改善方向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부의 인류학 교과목이 대부분 인류학 개론이고,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거의 모두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人類學科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대학입시 제도가 科別 모집이라는 사실이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제한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처럼 인류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는 매년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인류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도 인류학 개론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지만 인류학을 전공하는 전임 교수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학의 다른 전공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류학이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인류학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인류학의 전공 과목을 개설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학생들의 學究的 관심과 要求를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류학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女性人類學者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박사학위를 가졌으나 대학의 인류학 교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인류학과가 없다는 조건, 학생 지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건,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 여성 인류학자들을 전임 교수로 채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도 한국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류학자의 수가 적은 편인데, 그나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학과 관계 당국의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면 인류학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現職教授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학부생들에게 인류학을 가르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연구를 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류학 교육에서는 특히 실감나는 현지 조사 연구의 경험과 적절하고 생생한 민족지 사례의 제시가 학생들에게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 넣고 설득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을 동시에 잘 해 내기란 쉽지 않다.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라도 좋은 연구자가 못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탁월한 연구자가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무능한 경우도 있다. 두 가지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대학의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류학의 教授方法은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定型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는 있다. 특히 內容의 폭과 깊이에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백과사전식으로 인류학의 모든 주제를 다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다룰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주제를 망라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을 생략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생략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전체의 윤곽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강생들이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고 예술이나 법, 경영, 자연과학, 공학 또는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을 전공할 때는 더욱 그렇다. 더구나 다른 학문 분야들의 기초가 되는 초보적인 내용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러한 학문들과 인류학이 얼마나 다면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인류학의 敎材와 교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책이나 논문과 같은 문헌을 1차적으로 이용하지만, 이론서나 민족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는 교수 자신의 생생한 현지 조사 경험과 視聽覺 교재의 활용이다. 가르친다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인류학의 접근을 실감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개론의 대형 강의에서는 이런 교수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서울대의 인류학과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인류학 관계 映像敎材 필름을 100여 개 갖추고 주제와 지역별로 분류해서 解題를 간행한 바 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실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民族學博物館이 인류학의 실물 교육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가령 원시 경제의 화폐와 교환을 가르칠 때 룯셀 군도의 貝貨와 파푸아뉴기니의 폐지 송곳니 화폐, 물라캅에 이용되는 트로브리안드 섬의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직접 보여주고 그것의 제작 과정과 유통 및 이용에 관해 설명해 주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이 학부 중심인 데다가 교수의 수는 적고 대학원생의 수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大學院敎育이 不貲한 상태에 있고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의 인류학 교육에서는 적절한 교재 개발과 국내·외 인류학 관계 論著目錄 및 解題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대 인류학과에서는 지난 '8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그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대학원의 學位論文作成을 위한 지도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과 논문 작성은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반면에, 논문이 너무 길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 자신에게나 그것을 읽고 평가하는 교수에게나 다같이 효율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부의 저급 학년 강의, 특히 개별적인 질문과 토론 부분과 과제물의 검토 등에 대학원생들의 조교 활용을 건의한다. 이 방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조교의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의 재정적인 지원도 요청된다. *